상대의 잘못을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버리세요

☞ 19면에서 계속

가는 거죠. 소리가 저 바깥에서 나면은, 싸움을 하거나 이런다면은 눈으로 보는 동시에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내립니다. 그러니 동시지 어디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이름은 따로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모두가,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한군데다 모든 것을 한데 뭉쳐 놓으면 놓는 대로 통신이 되고 놓는 대로 작용이 되고 놓는 대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맡겨 놓고 '그놈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놈이 없으면 못 할 거고 그놈이…. 모든 거는 영원한 친구 그놈이, 거기서만이….' 그러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본래자성불이라고도 하고, 뭐,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 별 이름이 다 있죠.

여러분도 집에서 별 이름 다 가지고 있죠? 아버지라는 이름, 형님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죠? 어머니, 할머니 뭐 할 거 없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 할 때, 할머니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딸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들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아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아들 노릇 하고, "여보!" 그러면 "응, 왜 그래?" 그러고 남편 노릇 하고, "아버지!" 그러면 "얘, 언제 들어왔니?" 하면서 아버지 노릇도 잘하거든요.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멋진, 자성의 이 멋진 묘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모든 게 거기에서부터 두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사대가 통신이 되면 온통 들고 나면서, 하나의 생각이 수십만 개로다가 입자가 돼서 들고 나면서 일들을 하거든요.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과 유심이 다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작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쌍방이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 불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력은 하나지마는 갖다가 잇는 데는 줄과 줄을 한데 이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창조력을 기르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작용하는 도리를 하나로 말하지만 그 하나도 작용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없다고 한 것입니다. 평등공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뚱이가 있을 때 이 공부를 모두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스님네들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 마찬가지죠. 절에 입산을 해서 있다 할지라도 속가에서 살림하는 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마찬가지죠. 입산을 해 가지고도, 살림을 하는 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내 살림, 내 거'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게 이 부처님 법에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같이 나누어 먹고,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 입고, 서로서로 남의 원망을 하지 않고,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계율도 지킬 수 있고 질서도 지킬 수 있고, 무조건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잘못됐더라도 걸리지 말고 잘됐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 잘못됐더라도 그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 순간 돌아가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놔 버리세요.
>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보물 거기다 그냥 놔 버리세요.

몇 년 전까지 화목했는데…

질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이 아주 화목했는데 살림이 곤궁해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삐걱거리더니 지금은 아주 몸만 한 집안에 있지 마음은 모두 제각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화목한 집안으로 되살리고 싶은데 힘 좀 보태 주십시오.

답변 왜 집안에서도 화목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아이구, 저렇게….' 그냥 그러니까 미운 생각이 들고 말이 좋게 나가질 않고 얼굴부터 찌푸려지고 이러죠?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가 얼마나 멀다고 그렇게들 야단들을 하고 싸우고 옹옹거리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나로 인해서 부인이 있고, 부인은 나로 인해서 있는 거고, 나로 인해서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우릴 화목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을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밖에 없다.' 하고 놓고 "여보! 이제 들어왔소." 하고 밝게 대하고, 만약 집에 있는 부인이 상을 찌푸리고 신경질을 내더라도 "여보! 어디서 뭐 속상한 일이 있었소?"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늑하냐 이겁니다. 신경질을 내다가도 안 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신경질을 내는 걸 보면 벌써 "으이그!" 이렇게 시작하면 "아유, 괜히 신경질이야." 이러면서 그때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을 화목하게 살아가며 어떻게 자식들에게도,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먹는 대로 그 마음의 초점이 이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좋게 말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맡겨 놓으면 금방 돌아서서 마음이 착해지면서 "여보,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했어." 하고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체, 말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은 여기 안에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말로 남을 헐뜯을 일이 있더라도, 설사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더라도 부부니까, 부부 아니더라도 그래요. "여보, 어쩌다가 그랬소? 여보! 그래도 너무 상심 말아요. 아이, 죽으면 죽지, 뭐.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해 나가고 주인공에 다 놓는다면 그 사람이 그냥 잘 이끌어지고 잘 돼요.

자식도 그래요. 나가서 나쁜 짓을 하든, 나가서 노름을 하든,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내버려 두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대해 주는 거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잘못 말하거나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상전이에요. 부처님을 잘 모시려면 효도하고, 충성하고, 자식을 잘 이끌고,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이끌고, 형제지간에 잘 이끌고 이렇게 지혜가 넓어야 이것이 바로 불법을 잘 이끌어 가는 거기 때문에 불법을 빨리 승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불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지, 만약에 내가 이론적으로만 여러분한테 말한다면 여러분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말을 하면서도 말이 그대로 법이 되는 법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어떤 스님네들이 셋이 가다가 지네가 이만한 게 가더라는 거예요. 지네 발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네더러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구! 저 지네 좀 봐.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도 걸리지 않고 가는 것 좀 봐." 하니까 지네가 딱 서 가지곤 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걸려서 가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고만 세 스님네들이 깨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걸어가다가도 말을 하면 거기에 걸려 가지고 아주 옴폐부득을 못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보더라도 걸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잘못됐더라도 걸리지 말고, 잘됐더라도 걸리지 마십시오. 잘못됐더라도 그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순간 돌아가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놔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보물 거기다 그냥 놔 버려요.

내가 만약에 오신통이라는, 보물이 여기 있는데 이 보물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다 맡기지 않고선, 그 보물이 알아서 할 거를 내가 가지고 할 양으로 모두 간섭을 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고 탐지기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총무 스님한테 소임을 다 맡겼는데 총무 스님 일할 것까지 내가 나서서 그냥 다 해 보세요. 이 절이 그냥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러니 여러분은 거기서 다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깐, 거기다가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선입견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질문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그 선입견을 바꾸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정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내도록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다 넣어서 다시 좀 더 이렇게 해서 내면 좋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를 "이 그릇이 쪽이 떨어졌어." 이럭하면서 말을 하게 되죠.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으세요. 다시 그게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만 용광로에 넣고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어요.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할 텐데, 생산하는 것은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이 생산이 되듯이, 그 사람도 또 달리 보이는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죠. 고정되게만 보지 마라 이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행를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래 다르고 몇 달 후에 다르고 일 년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보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보느냐 이거예요. 그것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거는 만날 그 그릇에 엎드러져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게 습이거든.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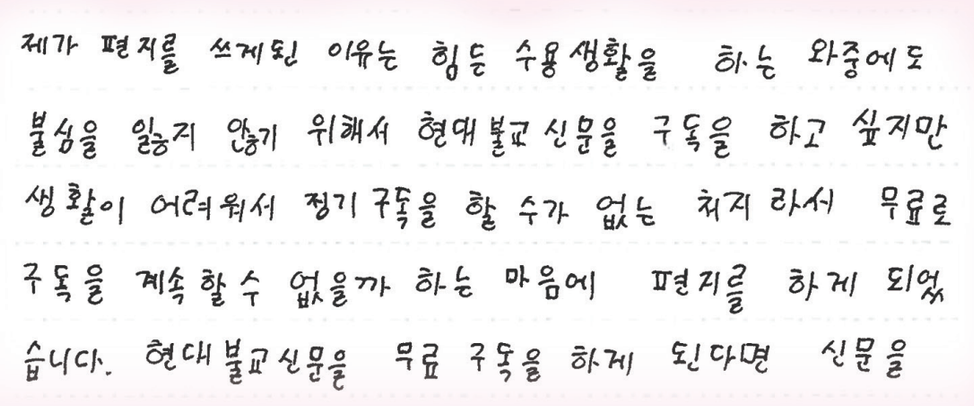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